

만남

2021년 6월
통권 197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蒼蹄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행복 선언-----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4
교리	교리 톡톡-----	7
영적 상담	-----	10
보물 창고	-----	12
슬기로운 신앙	-----	15
축일과 전례	-----	18
헌납금 납부자 명단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6월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혼인의 아름다움

혼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도움으로 포용과 신뢰와 인내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행복 선언

예수님 활동의 주 무대였던 갈릴래아 지방은 정치·사회·문화·종교 등 모든 면에서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뒤쳐지고 소외된 갈릴래아 사람들을 위해 행복 선언을 하십니다. 행복 선언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갈릴래아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슬픔에 가득 차 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새 하늘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충분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굶주림과 갈증이 해결될 것이며,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며 자비를 입을 것입니다.”

행복 선언의 메시지는 현실이 고통스럽고 비참하니 복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현실이 불행하지만 메시아로 오실 분으로 인해 밝은 미래가 동터올 것이므로 복되다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희망찬 미래로 인해 복되다는 힘차고 장엄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반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란 공연한 객기나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오기를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기진맥진한 사람들, 의기소침한 사람들, 결국 인간만사 부질없음을 깨달은 사람들, 결국 믿을 대상은 하느님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교만하거나 기고만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초라하고 부끄러운 지난 삶이지만 언제 가장 행복 했는가 생각해봅니다. 아무래도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가 행복했습니다. 신원에 걸맞게 충만히 살아갈 때가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이 영적 욕적으로 활짝 꽃피어날 때가 행복했습니다.

많은 경우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 여기며 착각하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세속적 행복은 반쪽짜리 행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쪽짜리 미완성의 행복을 넘어, 보다 완성되고 충만한 행복을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그 행복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가능한 행복입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승복함으로 인해 얻는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내안에 충만히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으로 인한 행복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합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될 때 행복합니다. 나로 인해 그 누군가가 고통 속에서도 견뎌낼 힘을 얻게 될 때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행복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마르 4,26-34)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6장 “그리스도 왕국”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당신의 사랑 안에 성장하게 하소서.
- ❖ 저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당신 안에 머무르면서 기뻐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4 26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27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삭에 낱알이 영근다.

29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30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31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32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 4 32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 33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 34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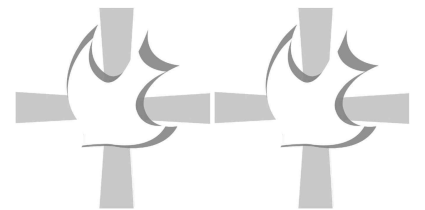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하느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농부의 수동성과 땅의 능동성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4,28) 여기서 ‘저절로’란 말이 중요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김없이 수확 때가 돌아오듯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4,29). 농부는 이 어김없이 다가오는 수확의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름을 주고 가꾸면서 성장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간을 주십니다. 이 시간은 수확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초대된 은총의 때이자 인내와 기다림의 때입니다.

이 시간은 ‘희망의 때’가 될 수도 있지만 ‘심판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거절하든지’ 아니면 ‘동참하든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영적인 길, 정의와 평화의 길, 사랑의 길에 있어 어정쩡한 중립지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동참한다고 해도 양다리를 걸치는 어정쩡한 태도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간다면 결코 ‘수확’이라는 풍요로운 미래, 곧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가 어김없이 도래할 때까지의 일상의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 사이, 곧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순간들을 시련의 시기로 보고 사랑으로 견디어나가야 합니다. 이 중간 시기에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믿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상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필연코 오게 될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곧 희망입니다. 겨자씨만한 선의와 실낱같은 사랑의 호흡을 지닌다면 그래도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음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6장 “그리스도 왕국”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10. 성상과 성화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성당에 가면 우리는 성모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상과 성화를 볼 수 있으며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편 개신교 신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상과 성화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은 과연 우상숭배일까요?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떠올리고, 부모님이 늘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듯이 성상과 성화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는 훌륭한 표지가 됩니다. 부모님의 사진이 부모님 자체가 되지 않듯이 성상과 성화 자체가 실재는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의 사진이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듯 성상과 성화는 실재를 보여주는 표징으로써 우리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전해주게 됩니다.

교회는 초세기부터 예수님이나 성인들의 모습과 행적을 담은 성상과 성화를 만들었고, 그것들을 기도와 복음 선포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성상과 성화를 통해 그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흠송하고 성인들을 공경하는 것이지 성상과 성화 자체를 흠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그리스도와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성화상을 특히 성당 안에 모셔 두고 이에 맞갖은 존경과 공경을 드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것 자체에 어떤 신성이 있다거나 덕이 있다고 믿어서 예배하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또는 옛 이교도들이 하듯 우상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을 공경함은 이것들이 표상하고 있는 근본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상과 성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상과 성화 앞에서 하느님을 묵상하고 성인들의 삶과 믿음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계시나요? 혹시 성상과 성화를 집에, 기도상 위에 하나의 장식처럼 비치해놓은 채, 마치 하나의 부적과 같이 여기며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조용히 침묵 가운데 성상과 성화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바라보고, 머리로 성상과 성화가 전해주는 장면을 그려보며, 마음으로 그 장면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 깊이, 더 생생하게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1. 북한 천주교회의 과거와 오늘

과거 1944년 교세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의 8개 교구 중에서 북한에는 3개의 교구(평양교구, 함흥교구, 덕원교구)에 약 5만 명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당시 평양교구에는 본당 19개, 공소 106개, 교육기관 22개, 복지기관 17개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신자 수는 2만 6,400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무렵에는 3명의 주교와 80명의 성직자 그리고 180명의 수도자가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을 만큼 북한교회는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1948년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가 운영하던 시설이 몰수되고, 1949년 평양 교구장 홍용호 주교의 납치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가 체포되거나 행방 불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에는 단 한 명의 사제도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었고, 교회의 재산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등 북한 천주교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40년 넘게 끊어져 있던 신앙의 맥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종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정책적 고려로 인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6월 ‘조선천주교인협회’가 결성되었고(1999년 1월 조선 카톨릭교 협회로 명칭 변경) 10월 평양에 장충성당을 건립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교회와의 교류도 이어가면서 주교단의 사목 방문이 성사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의 천주교 성당은 평양시 선교구역에 건립된 장충성당이 유일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된 신부가 없기 때문에 신자 대표 2명이 돌아가며 매주 일요일 3차례 공소예절을 거행하고 있습니다.(평소 70-80명, 큰 축일 때에는 200명 참석, 북한 신자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평양 내 신자는 총 800명) 반면 현재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천주교 신자 숫자는 해방 전 세례를 받은 사람과 1990년대 들어 생겨난 새로운 신자를 포함해서 약 1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천주교회는 1990년 후반부터 인도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적인 지원이 북한 복음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북한교회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천주교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방치했었습니다. 지난날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며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야겠습니다. 북녘땅에 있는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나눔을 더할 수 있을 때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꽃 피어날 것입니다.

12.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

Q : 신부님 오늘은 교황 주일인데, 교황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A : 교황 주일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께서 전 세계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황에 대한 신자들의 순명과 일치를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Q :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들 말하는데 아무런 흠도 없다고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신지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A : 네, 맞아요. 교황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존경받으실 만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교황님 역시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한 인간이기에 기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특히 교황으로서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는 너무나도 크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교황님이 교회의 참 목자로서 우리를 예수님께 바르게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Q :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쉬운 자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부터라도 교황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교황님은 어떻게 선출되시는 건가요?

A : 교황님을 선출하는 회의를 콘클라베라고 하는데요, 전임 교황님이 선종하시거나 사임하시게 되면 교황 선출권을 가진 80살 미만의 추기경님들이 시스티나 성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선거인 전체의 2/3 이상 득표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합니다. 당선자가 나오면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색 연기를 피워 교황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립니다.

Q : 아, 그렇군요. 신부님,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매일미사 책을 보다 보면 항상 첫 장에 교황님의 기도 지향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A : 마태오 복음 18장 19절~2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황님은 전 세계 신자들에게 매월 하나의 지향을 두고 마음을 모아 자신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교황님과 함께 같은 지향으로 기도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문

얼마 전 제가 아는 분이 여행사를 통해 유럽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다닌 곳이라곤 성당밖엔 없다고 하면서 돈 들여서 갔다온 것이 아깝다, 그 나라들은 무슨 성당을 그렇게 많이 지은 것이냐, 교회에서 신자들을 착취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저에게 신랄한 질문을 하는데 초보 신앙인인 저로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이런 분들에게 성당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런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그분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유럽사회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란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을 다녀가서는 한국에 갔더니 보여주는 것이라곤 절간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요? 유럽은 가톨릭국가이고, 그러니 당연히 성당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남미에 성당이 많은 것은 단순히 그 나라가 가톨릭국가여서만은 아닙니다. 성당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성모님 메시지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발현하실 때마다 성당을 지어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골짜기인 프랑스 루르드, 벨기에 반뇌를 비롯한 여러 곳에 크고 작은 성당들이 세워지고, 동네 곳곳에 성모님 뜻을 기리기 위한 성당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성당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당은 하느님과 성모님을 비롯한 여러 분과 영적 대화를 하는 자리입니다. 즉 우리의 영성적인 면을 성장시키기 위한 터란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룩한 자리와 속된 자리, 두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무속신앙을 믿는 분들은 지리산이나 계룡산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한 장소로 그곳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나 증권거래소 같은 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는 없겠지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 장소가 필요한데, 바로 성당이 그곳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성당은 마음의 휴식처입니다. 저도 얼마 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는 참으로 고달픈 여정입니다. 매일 짐을 싸고 풀어야 하고 버스와 비행기를 타야 하는 힘겨움뿐 아니라 낮선 음식, 낮선 잠자리에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그래서 같이 순례를 하는 분들끼리 예민한 상태에서 작은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성당에 들어가면 마치 어머니 품에 들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그래서 일부 영성심리학자들은 성당을 어머니 자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곳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동안에는 마음에 영적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 역시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고요. 이처럼 성당은 인생길 순례자인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휴식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당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에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성당에서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부부로 첫 걸음을 걷는 혼인성사도 성당에서 합니다. 돌아가신 분 장례미사를 해주는 곳도 성당이고, 죽은 자와 산 자가 마음의 통교를 하는 곳도 성당입니다.

이처럼 성당은 인생 전반의 모든 주제들이 함께하고 있기에 성당을 자주 찾아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당들도 그렇지만 가톨릭국가 성당들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받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심리적 일치를 이루는 데 성당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같이 성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간사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에 우리는 거룩한 곳이란 의미로 성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간혹 유럽 성당이 너무 화려하다, 신자들 돈을 착취해서 지은 것 아니냐, 성당이 화려한 것을 보면 성직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마치 화려한 성당이 무슨 범죄의 결과물인양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신심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신자들 중에서 신심이 강한 분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성당 지을 헌금을 내놓습니다. 성당에 자기 이름으로 봉헌된 성물이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신심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절에서 신도들에게 기왓장 한 장이라도 바치게 하는 것과 유사한 신앙행위인 것입니다.

성당이 화려하면 성직자들 생활도 화려한 것이냐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비안네 신부님 경우를 들자면 성당은 주님을 모시는 곳이기에 화려하게 꾸미셨어도 당신 숙소는 마치 마굿간 같았다고 합니다. 유럽 수도원을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성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당은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이고, 인간 역사의 많은 것들이 기억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형제님께서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중요한 성당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 묵주기도의 오해와 이해(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과의 대담)

Q : 묵주기도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A : 11세기경에 어느 수도원에서는 글을 못 읽는 수도자들을 위해 150편의 시편으로 기도하는 대신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150번씩 외우게 했습니다. 보조 수도자들이나 열심한 신자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성무일도 시간경을 바치면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50번씩 외웠는데, 이것이 확산되어 묵주기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성모송은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루카 1,28 참조), 엘리사벳의 찬양(루카 1,42 참조)으로만 되어있었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첨가된 때는 15세기입니다. 14세기경에는 150번의 기도를 15단으로 나누게 됩니다. 성모송 10번에 주님의 기도 1번,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거기에 카르투시오 회원이었던 프러시아의 도미니코 수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구절을 추가하고, 16세기에 이것이 환희, 고통, 영광의 15가지 신비로 정착되었습니다. 1569년에는 교황 비오 5세가 회칙을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형식을 정하였고, 17세기에는 성모송 10번에 이어 영광송(마태 6,13 참조)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옥영혼을 위한 기도는 1917년 파티마 성모발현 이후 첨가되었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2년에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활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제정했습니다(21항 참조).

Q : 어떤 신자들은 같은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보다 자유로이 기도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반문하는데, 교회가 특별히 묵주기도를 강조하고 장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 묵주기도는 단순한 형식으로 쉽게 바칠 수 있고, 철저히 성서를 묵상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빛의 신비’가 추가되면서 복음서 전체를 20단 안에 요약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었지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두가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문의 반복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연인과 부부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고백이라 하면, 왜 반복하느냐는 물음은 무의미합니다.

Q :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인가요?

A :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는 묵주기도의 정의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분명히 성모신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 우리는 이를테면 성모님의 마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과 생생하게 결합됩니다.”(2-3항). 한마디로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보다는 나를 잘 이끌어 줄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묵주기도는 성서적 근거가 없으며, 하느님이 아닌 인간의 계명으로 만든 기도”라고 하던데요?

A : 묵주기도는 성서의 많은 내용을 담은 기도입니다. 20단의 묵상 내용 모두가 복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기도(마태 6,9-13), 성모송, 영광송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우리는 성서에서 사람들이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요한 2,1-5 참조)을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전구를 간청하는 것도 같은 이치지요. 묵주기도에 복음 아닌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Q : ‘구원을 위한 기도’나 ‘성모찬송’을 꼭 바쳐야 하나요? 또한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다는 ‘성모칠고 7단’ 같은 기도도 바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묵주기도의 형식이 오랜 역사를 거쳐 변했다고 해서 옛사람들이 바친 기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모찬송이나 구원송도 기도를 풍요롭게 하려고 만든 방법의 하나인 것이지, 꼭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어요. 영광송 뒤에 다른 기도를 바칠 수도 있고요. 다른 묵상도 할 수는 있어요. 예컨대 특별히 지향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죠. 각 단마다 복음묵상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전에는 다른 내용의 신비도 많았어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웃과 연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묵상을 할 수 있죠. 성모칠고, 칠락 같은 묵상도 그러한 전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자유로이 하는 묵상이 자칫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될 위험도 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린 채 기적 중심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요. 교회가 수많은 묵상 가운데 오늘날의 20단을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검증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신비를 가장 쉽고 바르게 묵상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한 것이지요.

Q : 묵주기도를 바칠 때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기도하다가 분심에 빠지거나 지향을 생각하면 잘못이라고도 하던데요?

A :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어느 장소에서든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참 좋은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양손을 모은 것이 가장 집중하기 좋은 기본적인 몸가짐이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자라면 누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없으면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요. 기도의 의미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문에 담겨있는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에 대해 잘 묵상하면 하느님께서 길잡이가 되어 주시겠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느님과 대화 속에 다른 마음도 들어옵니다.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분심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내가 청해야 할 부분, 하느님과 함께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Q : 예비신자도 묵주기도를 할 수 있나요?

A : 신자가 아니라고 묵주기도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고, 누구든지 하느님께 말을 걸 수 있어요.

Q : 이따금 성모발현 관련 메시지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면 이러이러한 효력이 있을 것이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기도와 은총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A : 교회의 입장은 분명해요. 교회가 인정한 발현도 있고, 아직 인정을 보류한 사건도 있어요. 교회 전례일에도 등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신심행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진리의 핵심이자 최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묵주기도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것도 조심해야 할 유혹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겠지만, 복을 받는다고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건 상업적인 계산이지 믿음의 관계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묵주를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든지, 묵주가 끊어지면 불길하다든지 하는 생각도 경계해야지요.

Q : 축복받지 않은 묵주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A : 묵주는 본질적으로 기도를 돕는 도구이지요. 축복은 준성사의 일종으로, 성사처럼 성령의 은총을 주지는 않아도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은총에 협력하도록 결심하게 하죠. 물건을 축복함으로써 그것이 하느님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고, 목적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고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668-1672항 참조). 물론 축복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축복받지 않은 묵주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쓰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Q : 요즈음 묵주를 본뜬 목걸이가 유행인데, 묵주를 장신구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 묵주를 목에 거는 것 자체가 잘못된 아닙니다. 가지고 다니기 좋게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거나, 팔찌로 만들어 손목에 착용하거나, 휴대전화에 매달아놓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묵주의 최우선 용도는 기도인 만큼, 묵주를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장식 목적으로 휴대하는 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 주일, 그리스도인의 근원적인 축일(김기태 사도 요한 신부님)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가톨릭 신자들은 주일미사 참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인 토요일이, 이슬람교도에게는 금요일이 기도와 예배를 위한 날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듯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교서 「주님의 날」(Dies Domini)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인 주일의 의미를 밝혀 주는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교서의 머리말에서 교황님께서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는 주일의 모습을 언급하며 그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주일이 그 근본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단순히 ‘주말’의 일부가 되어 버릴 경우, 사람들은 지극히 제한된 지평 안에 갇혀서 더 이상 ‘하늘나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축제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어도 사실상 그들은 축제를 벌일 수 없게 됩니다.”(4항).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교황님의 우려처럼 주일을 단순한 휴식과 여가의 시간으로서 이해되는 ‘주말’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제의 날인 주일의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주일은 휴식의 날입니다. 이 휴식은 유대인의 안식일의 기원을 이루는 창세기 첫 장의 하느님의 ‘휴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2,2).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의 ‘휴식’은 하느님의 ‘무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의 총만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손수 하신 일을 둘러보시며 ‘보시기에 참 좋았다.’(창세 1,31 참조)라고 하신 것처럼 ‘기쁨과 환희에 찬 하느님의 시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이 관조적인 시선은 특히 모든 피조물의 으뜸인 우리 인간을 향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노래는 하느님의 이 특별한 시선과 마주하는 순간으로서 안식일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그대의 하느님께서서는 그대를 보고 기뻐하시리라. 그대가 사랑하는 백성, 가장 충실한 사람들 가운데로 오라. 오, 신부여, 오, 안식일의 여왕이여.” 마치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듯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이 가득하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일의 휴식은 바로 하느님의 이러한 사랑의 시선과 마주하는 ‘기쁨’의 순간이자 그분의 사랑에 대한 ‘기억’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함으로써 안식일 다음 첫째 날을 일찍이 ‘주님의 날’(주일)이라고 부르며 근원적인 축일로 삼았습니다.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은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영적’ 의미가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에 대한 기억으로서의 안식일과, 하느님의 창조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서의 주일은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행위를 핵심 주제로 합니다. 주일의 의미는 단순히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경축하고,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찬미로 가득 채우는 행위로서 그분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일의 휴식은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주님의 날, 곧 주일은 명백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거합니다. 복음서는 주님의 부활 사건과 이와 관련된 많은 일화를 안식일 다음 날, 곧 ‘주간 첫날’과 연결 짓습니다. 이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고(요한 20,1 참조), 십자가 사건으로 절망에 빠진 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루카 24,13-35 참조)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루카 24,36; 요한 20,19 참조).

그리고 일주일 뒤 의심 많은 토마스에게 나타나시어 당신 수난의 표지를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요한 20,26-29 참조). 이로써 사도 시대부터 안식일 다음 첫째 날, 곧 ‘주간 첫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날에 자신들의 생활 리듬을 결정하는 관습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곧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주된 특징이 되었습니다.

초세기 교리 교육에서 유대인의 안식일과 비교하여 주일의 탁월성을 증명하고자 할 때 강조하였던 것은 그리스도교 신비 전체를 담고 있는 부활의 새로움이었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의 사물과도 같은 상태로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이날은 그분과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나타난 날입니다. 그 신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받았으며, 그 신비 안에서 우리의 한 분뿐이신 스승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고자 노력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의 제자인 예언자들도 스승이신 그분을 기다렸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서간」, 9,1-2).

부활과 창조 사건의 연관성 안에서 주일은 또한 ‘새로운 창조의 날’입니다. ‘주간 첫날’에 일어난 부활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구성하는 우주의 주간 첫날(1,1-2,4 참조), 곧 빛을 창조한 날(1,3-5 참조)과 자연스럽게 연관됨으로써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이해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러한 생각에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콜로 1,16).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에페 1,10).

우리는 이 구원의 신비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부활의 날인 주일은 다른 어느 날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 세례 때의 첫 마음을 상기시키는 날입니다. 곧 세례를 통하여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한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전례는 부활성야는 물론 주간마다 돌아오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세례를 거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주일의 이러한 세례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주일의 핵심은 성찬례를 거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 1코린 11,24-25). 사도 시대부터 교회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하신 바로 이 말씀과 행위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 왔습니다. 주님의 만찬인 미사에서 성찬의 희생 제사를 거행하도록 함께 모이라고 부름 받은 하느님의 백성이 곧 교회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에 공동으로 거행하는 미사는 정해진 때와 장소에서 보편 교회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13항 참조). 그리스도인은 주일 미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체험하였던 것을 강렬하게 다시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으시고 대화를 나누시며 그들 마음에 응어리진 절망과 한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몸소 풀이하고 설명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여정을 따라서 엠마오의 두 제자는 말씀의 빛으로 감추어진 의미를 깨닫고, 빵을 쪼갤 때 주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였으며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사도로 변모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자녀로 발견하는 기쁨과, 영적으로 깊이 결속된 일치의 공동체로 발견하는 기쁨이 주일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 6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유스티나	홍 영 숙	베드로	김 부 남
13일	안토니오	김 현 규		이 영 원
19일	율리안나	김 효 정		최 윤 석
24일	세레자 요한	김 성 철	파울라	김 상 미
		김 민 규		최 영 자
		남 궁 경		
		박 진 태		송 문 규
		최 현 봉		이 민 재
		박 찬 진	29일	배 재 현
			바오로	박 종 래
				최 승 진

❖ 6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3일	안토니오	문철주(H) 박일열(H)	29일	바오로	최한우(O)
19일	율리안나	송윤아(H)			임완규(O)
24일	카타리나	고희경(H)			이범이(H)
21일	안셀모	이철민(H)			

❖ 6월 성가번호 ❖

6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7일	164	216	168	169
14일	439	211	163	201
21일	61	513	165	202
28일	55	512	176	208



❖ 6월 전례 봉사 ❖

6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커피봉사
7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허길조(안드레아) 허명자(가밀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X
14일	최승진(바오로) 신지혜(체칠리아)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X
21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8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X



♥ 4월과 5월 20일까지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현금

이영희 Eggerstedt, 강신행, 김경미, 강순행, 서세원, 최장용, 육종인, 우동천, 정마리아, 이정수, 윤석순, 정명옥, 익명,

* 계좌(5월 14일까지 확인)

김유석, 이정훈, 이수웅, 심동근, 이석우, 정정숙, 현영애, 권말숙 Rabe, 김대현, 김동수, 김선애, 김치수, 김진호, 김효정, 배성우, 백정선, 송문규, 이경규, 이공종, 이명원, 이성원, 오옥수 Ranitsch, 최현봉, 최아나벨, 허두옥, 허길조, 이석우,

♣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5월 24일 자 잔액은 35.275,44 유로입니다 (배구대회 잔액 4,449,43 유로 포함).

❖ Hamburg 공동체 소식

1.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한 달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월에도 미사 후 커피 나눔과 신심단체 모임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조를 잘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3. 6월 11일 금요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대축일 미사를 10시, 만남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아울러 6월 25일 금요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10시에 만남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카카오톡으로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락다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6월까지, 다시 말해서 상반기에는 지방공동체 미사를 봉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Q.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도우미 P.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도우미 P.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도우미 P.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6월(예수 성심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화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2	수			
3	목	성 가를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독일)	
4	금			
5	토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망종, 환경의 날		브레멘 공동체
6	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현충일		
7	월			
8	화			
9	수			
10	목			
11	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10시 미사(만남 성당)	사제 성화의 날
12	토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13	일	연중 제11주일		
14	월	단오		
15	화			
16	수			
17	목			
18	금			
19	토			하노버 공동체
20	일	연중 제12주일		
21	월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수도자 기념일, 하지		
22	화			
23	수			
24	목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25	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10시 미사(만남 성당)	
26	토			
27	일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28	월	성 이레네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29	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30	수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